

“산지서 소비자 직송... APC 중심 온라인 판로 확충”

(농협 산지유통센터)

전남농협, 지역 농산물 'NH쌍뿔' 입점 확대 추진 라이브커머스 확대도...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 대응

전남농협이 급성장하는 온라인 식품시장을 새로운 농산물 판로로 삼고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생산·선별 기능이 머물렀던 산지유통센터(APC)를 온라인 판매 거점으로 육성해 전국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고, 산지직송 중심의 새로운 유통망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농협 전남본부는 9일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전남권역 APC 운영 농업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농협물(NH쌍뿔) 입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대응해 전남 농축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농협물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농협물 사업 현황과 입점

절차,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 판매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세에 대응한 판매 전략을 공유했다.

신규 입점 APC에는 전남 담당자 배정과 타임세일·릴레이 특가전 참여 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안내했다.

그동안 농산물 판매는 공영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지만 온라인 식품 구매가 일상화되면서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산지직송 방식이 새로운 유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농협물(NH쌍뿔)은 현재 807만 명이 넘는 회원이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2300억원 이상의 사업 실적을 기록했다. 산지직송 사업 규모도 600억원대를 유



농협 전남본부는 9일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전남권역 APC 운영 농업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농협물(NH쌍뿔)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하며 농축산물 전문 온라인 플랫폼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쌀과 과수, 원예작물 등 다양한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

러나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의 거리가 멀고 유통비용 부담도 커 온라인 판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협은 APC의 온라인 입점을 확대해 산지 농산물의 판매 기반을 넓

히고 농업인 수취가격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확대는 가격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양파와 배추,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

산량과 수급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농가 경영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브커머스도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판매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협은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과 브랜드관 운영, 카드사 연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온라인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판매역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전남의 우수 농축산물이 농협물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고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통장 잔액 늘리면 매주 현금 리워드

광주은행, 8월까지 '주머니 이벤트'...최대 12만원 혜택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고객의 자발적인 저축 습관 형성과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12주간 '주머니(주간머니줍줍)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광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응모 후 5월 평균잔액 대비 입출금계좌 평균잔액을 늘리면 달성 구간에 따라 매주 현금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반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축 목표를 세우고, 저축의 즐거움과 금융 혜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목표 구간은 평균잔액 증가 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 운영된다. 구간에 따라 매주 5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현금 리워드가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리워드는 목표 달성한 최상위 구간 기준으



로 지급하며,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리워드는 지급일 기준 정상 계좌를 보유하고,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상용 광주은행 신성장사업부장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사회적 가치소비 '푸룻마켓' 13일 연다

광주시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에서 '하이, 푸룻마켓'을 개최한다.

'하이, 푸룻마켓'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사회적경제지원협회, 광주지활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대표 가치소비 마켓이다.

'하이, 푸룻마켓'은 2024년 첫 행사 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 규모와 방문객이 꾸준히 늘며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립수목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30여곳 참여 공예 체험·비눗방울쇼 등도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엠타이클링 체험을 비롯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정비구니와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해 일상 속 탄소중

립 실천을 독려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주물럭 비누 만들

기, 키캡 및 볼펜 꾸미기, 슬라임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공예 체험, 비눗방울·풍선(별론) 쇼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현장 구매 합산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두 노동권리지정책임관은 “이번 마켓은 시민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농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723억원 투입

정부·지자체와 공동 지원...농가 비료 구입 부담 완화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공동으로 총 723억원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원은 정부 271억원, 지자체 181억원, 농협 271억원으로 마련된다.

올해 초 중동지역 경제 불안으로 비료 원재료인 요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비료 수급 불안 우려가 커졌지만, 농협은 국내 비료업체와 협력해 수입선을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농민에게 필요한 원재료를 조기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써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예약구매 체계를 운영해 비료업체의 원재료 선확보를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수급동향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원자재 수급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를 통해 약 100일간 비료 가격을 동결하며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와 고환을 여파로 비료 원재료인 요소의 압도적 가격이 각각

77%, 80% 급등하면서 국내 비료업체의 생산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농협은 정부와 국회에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 4월 10일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가격보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비료업체 공급가격은 평균 27.8% 인상됐지만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공동 지원으로 농업인은 기존 가격보다 5.4% 오른 수준에서 비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이번 사업이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가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료 수급 안정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서 양파·대파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농협 광주본부, 양파·대파 착한소비 캠페인

직거래장터 특가 행사로 농가 지원 동참 유도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야외주차장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서 양파·대파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양파와 대파는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산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현재 산지 가격은 평년 같은 기간 대비 양파는 35%, 대파는 26% 수준에 머물러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 광주본부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

환으로 이번 특가 판매 행사를 마련했다.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은 양파와 대파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며 농가 지원에 동참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착한소비 캠페인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촌 농축협에 도농상생기금 3771억원 지원

경제사업 활성화·손실 보전 활용...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3771억원 규모의 도농상생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상생협력위원회는 도시 농협조합장 8명과 관련 부서장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도농상생기금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시 농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이다. 올해는 이번 지원분을 포함해 총 8988억원이 농촌지역 농축협에 무이자로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지역 농축협은 지원받은 기금을 활용해 농축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등락,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은 도농상생기금이 농촌 농축협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도농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도농상생기금을 확대해 교류와 동반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